

## 청주 직지축제 및 직지상 시상식 성료

# 1377합창단 감동의 하모니 극찬

2012 '청주직지축제'가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청주예술의전당과 청주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번 축제에는 기존의 형식과 관행을 깨고 보다 시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시민합창단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전시행사로 미디어전시관, 미디어아트 전시회, 세계기록유산 패널, 지식정보 선도도시 청주의 미래상 등이, 참여행사로 1377퍼레이드, 멀티미디어쇼, 댄스, 노래, 콘서트, 가을밤 음악연주회 등의 공연과 미디어과학체험, 영상, 애니메이션, 고인쇄문화체험(활자, 한지, 배첩) 등 체험학습도 진행됐다. 학술행사로는 미디어학술회의(멀티미디어), 국제학술회의(고인쇄전문가) 등이 열렸다. 한편 매년 9월 4일은 직지의 날인데,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인 2001년 9월 4일을 직지의 날로 청주시 조례로 정했다. 이에 매년 9월 4일 직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격년제로 직지축제와 직지상 시상식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된 호주국가기록원에 상금을 전달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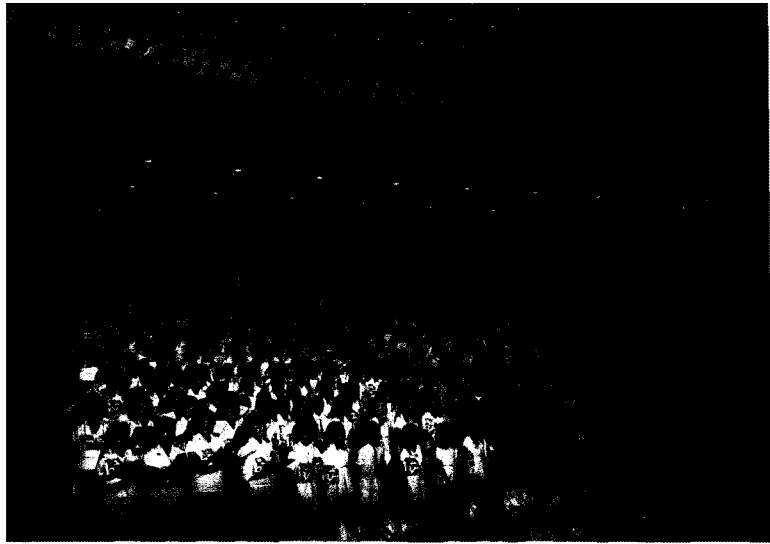
### 2011유네스코 직지상에 호주국가기록원

'2011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은 9월 2일 오후 3시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식에는 국내 주요 기록 문화관련 인사 145명과 유네스코 본부 세계기록유산 담당관인 조이 스프링거(Joie Springer)씨, 호주 국가기록원장인 스티븐 엘리스(Stephen Ellis)씨, 2005 수상국인 체코 국립도서관의 아돌프 크놀(Adolf Knoll) 관장 등이 참여했다.

올해 수상자는 1960년 설립된 호주국가기록원으로 인류기록 보존과 접근성향상을 위한 '2테라바이트(2TB) Born Digital' 프로그램을 개발해, 걸넷 잉크로 쓰여져 손실 우려가 있는 삽화, 원고, 지도, 약보, 공문서 책 등을 원본 그대로 영구히 보존토록 디지털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오픈소스 공유로 누구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 호주국가기록원 사이트에서 200만 건 이상의 디지털 문서들이 다운로드 됐으며, 앞으로 국가 전체기록들을 디지털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호주국가기록원은 시상금 3만 달러를 기록유산보존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존분야의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직지상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한 직지의 독창적인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우리 선조들의 창조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해 2년마다 시상하는 세계기록유산 분야 최초의 국제적인 시상으로, 2005년 첫 수상국은 체코 국립도서관이 선정됐으며, 2007년 오스트리아 과학학술원 음성기록보관소, 2009년 말레이시아 국가기록원이 각각 수상했다.



1377 시민합창단



2011년 직지상 선정 회의에 참여한 주요인사

### 1377명의 감동의 하모니

이날 시상식에서는 1377년 금속활자로 인쇄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직지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해 청주시민과 청원군민 1377명이 참여하는 시민합창단이 '내 고향 청주, 우리의 직지', 시립예술단의 '까르미나 부라나 No 24번과 25번', 합창 환상곡 '고향의 봄'을 합창했다.

청주합창단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청아하고 맑은 초가을 하늘 아래 예술의 전당 직지축제 공연은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이었다. 바로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와 하모니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 직지상 상장

직지상 상장은 가로 40cm 세로 110cm 크기로 한국 전통 양식의 교지형으로 충북무형문화재 17호 안치용 한지장과 무형문화재 7호 홍종진 배첩장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다.

우선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17호 안치용 한지장이 국산 닥나무 껍데기를 벗겨 벗짚과 콩대 태운 잿물로 삶아 깨끗하게 정제작업을 거친 뒤, 두드려 건조하고 자연표백을 하여 이를 울음이 풀어 한지를 뜯 후 곡물을 이용한 코팅과 도침(다듬이질) 과정을 거쳐 인쇄가 가능한 표면이 매끈한 한지를 생산해 냈다.

상장 디자인은 청주대학교 문화산업 디자인혁신센터 이길환 부센터장이 유네스코의 공식문양과 서식을 기본으로 직지의 정신이 담긴 한자라고와 영문로고, 한글을 조합해 배경글씨를 만들고, 바탕에는 황금색으로 품위를 높이며 그 위에 직지상 엠블

럼을 얹은 후 상장문안을 넣었다. 여기에서 현대 인쇄기를 이용해 인쇄를 한 결과 색감과 선명도가 뛰어난 전통한지 상장을 만들었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7호 홍종진 배첩장이 직지 브랜드 로고를 사방연속 무늬로 염색한 실크 원단을 사용한 비단 뒷면에 배첩용 한지를 몇 년 식힌 풀을 칠하여 붙이고 사면에 무늬비단을 배첩한 뒤 말리고 물 뿌리기를 되풀이 했다. 7일 정도 지나 숨 쉬는 천연상태가 되어 붙인 부분이 습기와 건조에 무관하고 트거나 뜨지 않는다. 밑에 무게 중심을 잡는 나무봉을 넣고, 위에는 비단 수술과 아래에는 옥장식 매듭을 단 한국 전통양식의 교지(두루마리)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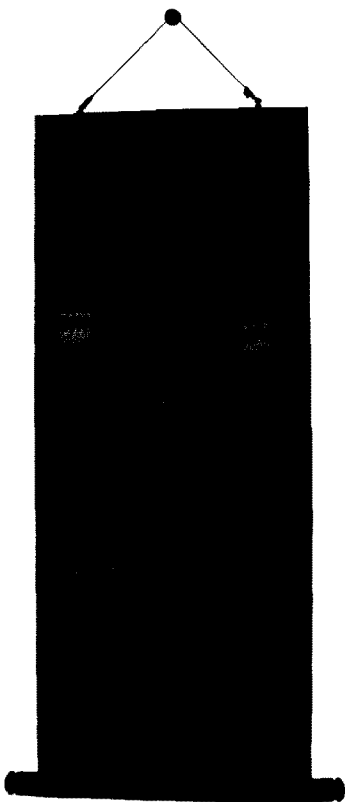
청주시 관계자는 "직지 상장은 한지장과 배첩장 등 우리고장 무형문화재들이 수개월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또 하나의 작품으로, 수상기관에서 전시되어 우리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고인쇄박물관, 한국의 장황 특별전 개최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은 9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을 기념해 '전통을 이어가는 한국의 장황' 특별전을 개최한다.

장황 특별전에서는 이 분야 최고의 기능을 지닌 중요무형문화재 102호 김표영 선생과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7호 홍종진 선생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제1대 금속활자장 고 오국진 선생이 청주를 배경으로 한 '서원 팔경도' 목판화 탁본 등 옛 책의 장정 변화와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도 전시된다.

한편 장황(裝潢)은 글자와 그림에 미적 가치와 실용성, 보존성을 부여하기 위해 족자·액자·병풍·서첩 등으로 꾸미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고대 중국 한대(漢代)에 발생해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돼 삼국의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한 장황은 종이와 비단으로 만들어진 글과 그림, 각종 기록물과 문서 등을 보존하고 아름답게 꾸미려는 미적 추구의 노력으로 수준 높은 장식예술로 발전했다. ㉠



2011직지상 상장